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K-CRSQ)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CRSQ와 10개의 타당도 지표를 초등학생 286명에게 실시하여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적 합치도는 .85~.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82의 범위이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질문지와 10개 타당도지표 점수와 상관을 구한 결과 첫째,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가정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 둘째, 거부민감성과 다른 심리적 문제와의 관계에서 중재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존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 셋째,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 점수를 고저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의도귀인, 우울, 불안, 공격성 점수가 높고, 거부민감성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자존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Tel : 055-740-1294, E-mail : shhong@cue.ac.kr

아동은 가족, 친척, 친구, 교사 등과 같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또는 관계를 통해서 생활하고 성장,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소속되고 인정과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거절이나 거부를 경험하기도 한다. 거절되거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응하는 아동도 있지만 어떤 아동들은 그러한 경험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하고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아동도 있다. 유사한 거부경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지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모델이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Lebold, Rincón, & Freitas, 1998; 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은 일종의 방어적 동기체계와 같은 작용을 해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부민감성이 활성화 되어 불안, 분노 또는 우울과 같은 방어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하게 된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Romero-Canyas, et al., 2010; 박지윤, 정영숙, 2008). 거부민감성이 활성화되면 거부당서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집중하게 되고 과민하게 되어 실제로 거부를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사회적 불안과 위축의 형태의 방어적 반응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반응을 나타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거부당하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악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상호작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성격적 성향(personality disposition)이고 사회적-인지적-정서적 취약성을 구성하게 된다(Romero-Canyas, et al., 2010).

Downey와 Feldman(199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어 그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술하게 하였다. 또래, 부모, 연인으로부터 거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불안/염려차원과 수용/거절 예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거절민감성을 의미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예상해서 경험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여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는 또래, 부모, 연인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는 18가지 대인관계상황이 포함되어 있고, 거부민감성은 독특한 개인차 변인으로서 내향성, 신경증, 자존감, 전반적 애착 양식, 우울, 사회적 불안 또는 사회적 회피 측정치와 중첩되지 않고(Downey & Feldman, 1996), 자기모니터링(self-monitoring), 타인에 대한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과 상관이 거의 없고(Romero-Canyas & Downey, 2008), 자기애와는 약간의 부적 관계가 있다(Raskin & Terry, 1988).

이 척도가 개발된 이후 특히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모호한 행동에 대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해석하고(Downey & Feldman, 1996),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Levy, Ayduk, & Downey, 2002)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이다(Downey, et al., 2000). 또한 거부민감성은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공격성(Downey, Feldman, & Ayduk, 2000), 저소득층(Paprocki, Downey, Berenson, Bhushan, & El-Bassel, 2008)과 수감된 여성(Bedell, 1997)에서 나타나는 가정폭

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연인에 대해 질투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Downey & Feldman, 1996) 폭력행동(Downey, Feldman, & Ayduk, 2000)을 많이 나타내고, 높은 여성들은 낮은 여성들보다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이지 않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Downey & Feldman, 1996)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Ayduk, Downey, & Kim, 2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대학생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느리게 하고 대학생활 동안 이성교제의 빈도가 낮은 것(Downey, Halim, & Bloger, 2003), 자살시도, 빈번한 폭식행동과 같은 자해적 행동의 위험요인(Ayduk et al., 2008)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은 자기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yduk et al., 2000; Ayduk, Gyurak, & Luerssen, 2009).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개인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사회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제시킨 후의 거부민감성은 파트너와의 성적 관계에서 낮은 자기결정력, 낮은 HIV 예방 노력과 관련이 있었다(Parprocki, et al., 2008).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억제시키고(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자신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도 하려고 하게 된다(Downey & Ayduk, 2002; Purdie & Downey, 2000).

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된 후, Downey 등(1998)은 아동과 청소년기 초기에는 또래와 교사로부터의 수용과 거부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아동용 거부민감성척도(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 Downey, Lebold, Rincón, & Fritas, 1998)를 개발하였다. CRSQ는 또래와 교사에 대한 아동의 거부예상과 더불어 예기불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성인용 거부민감성척도와 동일하지만 분노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Downey 등(1998)은 CRSQ를 개발하면서 성인과는 달리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민감성을 거부를 예상하면서 나타나는 불안과 분노 경험, 의도가 모호한 거부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거부감과 자신에 대한 감정, 거절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부 단서에 대한 반응민감성은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했을 때 더 나타나게 되고 거부민감성은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키므로 Dodge(1980)의 적대적 귀인질문지와 Harter(1982)의 지각된 자기유능감 검사를 사용하여 구성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5, 6, 7학년들에게 또래나 교사로부터 거부가 지각되고 실제로 거부나 수용경험이 있기 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불안뿐만 아니라 거절한 상대방에 대해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과 같은 분노반응이 나타나서 이를 추가시켰다. 대표적인 거부상황을 찾아내기 위해 50분간 6~12명의 아동을 면담하여 25개의 상황을 도출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기술하게 하여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래

관련 6가지, 교사관련 6가지, 총 12개 상황으로 구성하고 각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불안, 분노와 실제로 거절이 일어날 지에 대한 신념을 6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를 실시하면 거절불안 민감성(거절예상 점수와 거절예상불안 점수를 곱한 값), 거절분노 민감성(거절예상 점수와 거절예상분노 점수를 곱한 값), 거절예상 점수(12가지 상황에 대한 거절예상 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값)를 산출할 수 있다.

아동용 거부민감성척도를 사용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아동들에게 면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급우를 선택하도록 한 후, 아동 자신이 선택한 친구가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실험자가 전해줌으로써 모호한 거부상황을 조작하였다(Downey et al., 1998; 연구 2). 그 결과 RS가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보다 스트레스(distress)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낮은 아동들은 의미있게 스트레스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시간이 경과해도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본 결과(Downey et al., 1998; 연구 2) 5, 6, 7학년 때 거부분노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1년 후의 자기보고에서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 자신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평가에서도 또래에게 더 공격적이고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부에 대한 분노반응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보다 성적이 낮고 정확횟수가 많고 교직원 및 또래 및 이성인 또래들과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 RS가 높은 여아들은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스스

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하겠다고 보고하였다(Purdie & Downey, 2000). 즉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 또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초기의 거부민감성은 이후의 사회적 위축과 회피, 불안, 외로움 등을 증가시킨다(London et al, 2007).

국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부민감성 연구에서 Downey와 Feldman(1998)이 개발한 CRSQ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간과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박지윤과 정영숙(2008)은 우리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정서와 다르게 정서는 문화특수적이기 때문에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부의 의미와 거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용 거부상황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판 CRSQ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원판 CRSQ에서 제시된 12가지 상황에 3가지 상황을 추가하여 15가지 상황에서의 거절예상율과 예상 정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Downey와 Feldman(1998)이 제시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 나라 아동들이 거부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낮았고 불안과 분노 반응 이외에도 ‘우울하다’, ‘슬프다’, ‘섭섭하다’와 같은 낙담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13가지 상황을 더 추가하여 총 25가지의 잠정적인 거절상황을 설정한 후 297명의 아동들에게 거절예상 정도와 거절관련 정서를 측정하고 거부민감성 고저에 따른 거절예상정도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또래와 관련있는 8가지, 교사와 관련있

는 4가지 상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형 거부민감성척도¹⁾는 원판 거부민감성척도와는 달리 거절상황에서 나타나는 우울민감성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척도가 개발된 이후 아동학대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또래관계(장미희, 2011), 외로움(손은경, 민하영, 201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주관적 안녕감(구미선, 2012),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김정희, 이지연, 2010)를 다룬 연구들에서 활용되었다.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예비상황 선정 연구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 3가지 거부민감성 요소의 내적 합치도는 보고되고 있지만 거부민감성 요소 간의 상관뿐만 아니라 Downey와 Feldman(1998)이 보고한 구성타당도가 연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거부민감성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용과 배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외로움, 우울, 불안, 공격성, 또래관계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입증이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구성한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진 몇 가지 변인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알아보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경상남도 중소도시와 군지역 소재 10개 초등학교 5, 6학년 33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문항 수가 각 검사별로 5% 이상인 자료, 손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48부를 제외한 총 2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 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의 수가 많아서 3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표본에는 거부민감성, 자존감, 공격성, 사회적 지지, 의도귀인척도, 아동학대, 또래괴롭힘, 긍정적 정서, 2표본에는 거부민감성, 불안, 분노, 우울 척도, 3표본에는 거부민감성 척도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3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1표본은 5학년과 6학년은 각각 43명, 85명, 남녀 학생수는 각각 59명과 69명, 평균연령은 12.44세($SD=.89$), 2표본은 6학년은 73명, 남녀 학생수는 각각 38명과 35명, 평균연령은 12.96세($SD=.39$)의 경우, 3표본은 5학년과 6학년은 각각 54명과 31명, 남녀 학생수는 각각 45명과 40명, 12.36세($SD=.48$)이었다.

타당도지표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거

1) 박지윤과 정영숙(2008)에는 거절민감성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라는 용어가 일관성 있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거부민감성이라 하였음.

나 가정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또래괴롭힘, 거부민감성의 처리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의도귀인, 거부민감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우울, 불안, 공격성과 중재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김은경(2008)이 Bernstein 등(2003)이 제작한 아동기 외상경험 질문지를 중심으로 신체적 학대는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전략척도, 정서적 학대는 신영화(1986), 고성혜(1992)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가정내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경험한 학대행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방임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관리의 소홀, 보살핌의 결핍, 신체적 학대는 훈육차원의 체벌과는 구별되는 구타와 폭력행위, 정서적 학대는 모욕을 당하거나 언어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는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방임은 .67, 신체적 학대 .83, 정서적 학대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구한 결과 각각 .57, .75, .78이었다.

나)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SEQ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상의 괴롭힘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에게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지 못하도록 따돌린다.), 명백한 괴롭힘(예, 나를 때린다.)을 측정하는 5문항과 친사회적 행동(예,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도와준다.)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점수를 의미하도록 하여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관계상 괴롭힘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백한 괴롭힘은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또는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임지영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관계적 괴롭힘이 .80, 명백한 괴롭힘 요인이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구한 결과 각각 .83, .96, .91이었다.

다) 의도귀인척도

모호상황에서 의도귀인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경(2008)이 Crick(1996)의 가설적 상황도구를 우리나라 실정과 연구상황에 맞게 수정

한 10개의 장면을 사용하였다. 각 장면은 상대방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 사건에 대해 아동의 적대적, 의도적 귀인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각 상황에 대해 적대적 귀인점수를 묻는 2개 문항(2점 척도)과 의도적인 고의성에 대해 묻는 1개 문항(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적대적 귀인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의 의도를 더욱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것이고 의도적 귀인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의 의도를 더욱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는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 .67, 의도적 귀인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구한 결과 .87, .83이었다.

라)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 SEI) 단축형을 김경연(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EI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인까지 적용범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적 자아영역, 사회적 자아영역, 가정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학교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각 영역에 대한 아동 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자신의 상태나 느낌과 비슷하면 ‘그렇다’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의 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경연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마) 아동용 자기지각검사

아동용 자기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는 Harter(1985)가 아동의 유능감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아동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생활영역인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등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 가치(self-worth) 영역 등, 총 6개 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주미, 2000). 이 도구는 아동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각 문항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는 진술문을 읽어보고 아동 자신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한 후, 다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약간 그런지 또는 매우 그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주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배주미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73~.84, Harter(1985)의 연구에서는 .71~.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총점을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6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바)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24문항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태희(2004)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인정, 관심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0~3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태희(2004)의 연구에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1, .89,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각각 .90, .93, .89이

었다.

사) 아동용 우울검사

배유진(2009)이 아동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단일 검사와 종합적 성격검사의 하위척도 문항을 수집하여 정서, 인지, 또래 또는 대인관계, 신체-생리적 증상, 동기증상으로 분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힌 아동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의 3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유진(2009)의 연구에서 도출한 단축형을 사용하였는데, 우울증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와 정서를 의미하는 12문항, 의욕 및 신체활력을 재는 8문항, 교우관계적 특징을 재는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전혀 그렇지 않다), 1(약간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배유진(2009)의 연구에서 인지와 정서 .92, 의욕 및 신체활력 .92, 교우관계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7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각각 .89, .75, .67이었다.

아) 아동용 불안검사

아동용 불안검사는 Reynolds와 Richmond (1978)가 Castenada 등(1956)이 개발한 아동용 표현불안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MAS)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Revised CMAS)이다. 이 검사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28 문항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척도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7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불안점수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자) 아동용 분노척도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분노표현척도 연구들(전경구, 1996;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홍상황, 광경숙, 김미라(2009)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특성분노 9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6문항, 분노조절 8문항, 총 22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홍상황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특성분노 .82, 분노표출 .84, 분노억제 .70, 분노조절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7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각각 .81, .83, .66, .91이었다.

차) 긍정적 정서

이은경과 이양희(2006)가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는 우리나라의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0~12세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 용어로 구성되었다. 모두 57문항으로 정적 정서 용어 24개와 부적 정서 용어 33개로 구성되며 4점 척도로 아동의 기

분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은 57~228 점 사이에 분포한다. 아동용 정서 경험 척도의 정적 정서 용어의 구성타당도 점수는 .97이며 부적 정서 용어는 .9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대조적인 긍정적 정서와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 중에서 긍정적 정서 용어 24개 중에서 아동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3문항(열중하다, 반갑다, 사랑하다)을 제외하고, 3~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2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8 이었다.

자료의 처리와 분석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개별 척도들의 문항의 5%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윈도우즈용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둘째,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고 거부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거부민감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8가지 지표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도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는 친구관련 상황 8가지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생기는 불안, 분노, 우울 정서와 거부예상신념을 분리하여 측정된 후, 거부불안 민감성(거부불안기대)은 거부예상불안과 거부예상신념, 거부분노 민감성(거부분노기대)는 거부예상분노와 거부예상신념, 거부우울 민감성은 거부예상우울과 거부예상신념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2가지 거부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구분하여 계산하였고²⁾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면 거부불안은 .78~.89, 거부분노는 .71~.85, 거부우울은 .78~.92의 범위이었고 거부민감성 총점의 내적 합치도는 .85~.92 범위이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5~6학년 85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한 결과 .75~.82 범위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초등학생 21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거부민감성 점수와 3가지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3가지 하위 거부민감성 간에 상관이 높아서 어느 하나를 통제된 후의 부분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표 2>에 같이 제시하였다.

타당도

거부민감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고,

2) 각각의 거부민감성은 각 거부상황에서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거부예상 정도)와 거절상황에서 경험하는 예기정서(예상불안, 예상분노, 예상우울)를 곱하여 계산하였음.

표 1.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α) ($n=213$)			검사-재검사 신뢰도 ($n=85$)		
	친구	교사	전체	친구	교사	전체
거부불안	.89	.78	.89	.81**	.78**	.82**
거부분노	.84	.71	.85	.75**	.82**	.75**
거부우울	.89	.78	.92	.77**	.82**	.81**

주 1. ** $p < .01$

표 2. 하위영역간 상관

	전체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불안	.97**		
거부분노	.96**	.88** (.32**)	
거부우울	.97**	.91** (.57**)	.90** (.51**)

주 1. ** $p < .01$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거부민감성 척도 점수를 고저집단으로 구분하여 8개 지표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가)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1)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가정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또래괴롭힘, (2)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문제와의 관계에서 중재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의도귀인, 자존감, 사회적 지지, (3) 거부민감성과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변인으로 구분하여 상관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거부민감성 전체점수 및 3가지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포함시킨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 및 3가지 하위영역 점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과 다른 심리적 문제와의 사이에서 중재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의도귀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자존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고,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의 경우 특성분노와 분노억제는 거부민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분노표출, 분노조절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은 긍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티당도지표와의 상관

	거부민감성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거부전체
아동학대				
방임	.15	.19*	.19*	.18*
신체적 학대	.17	.17	.17	.17
정서적 학대	.29**	.29**	.28**	.30**
또래괴롭힘	.60**	.51**	.55**	.58**
관계상 괴롭힘	.61**	.50**	.49**	.56**
명백한 괴롭힘	.49**	.45**	.47**	.4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38**	.31**	.36**	.37**
의도귀인	.43**	.46**	.37**	.44**
적대적 귀인	.44**	.48**	.38**	.45**
의도적 귀인	.39**	.42**	.33**	.39**
자존감	-.53**	-.51**	-.53**	-.54**
지각된 자기유능감	-.50**	-.47**	-.48**	.51**
사회적 지지	-.41**	-.43**	-.43**	-.44**
가족	-.38**	-.31**	-.34**	-.36**
친구	-.41**	-.40**	-.44**	-.43**
교사	-.31**	-.42**	-.38**	-.38**
우울	.48**	.36**	.44**	.44**
인지와 정서	.43**	.30**	.36**	.38**
의욕 및 신체활력	.38**	.32**	.37**	.37**
교우관계	.37**	.25*	.37**	.34**
불안	.53**	.41**	.45**	.48**
분노				
특성분노	.33**	.30*	.29**	.32**
분노표출	.15	.21	.17	.18
분노억제	.37**	.30*	.32**	.35**
분노조절	-.01	-.07	-.04	-.04
공격성	.36**	.46**	.36**	.41**
신체공격	.31**	.42**	.31**	.36**
언어공격	.19*	.27**	.18*	.22*
분노감	.37**	.44**	.38**	.41**
긍정적 정서	-.35**	-.39**	-.43**	-.41**

주 1. * $p < .05$, ** $p < .01$

나) 준거타당도

거부민감성 점수에 따라서 거부민감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도קי인, 자존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의 점수가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부민감성 전체 점수 상위 30%, 하위 30%를 고저집단으로 선정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거부민감성 점수 고저집단 간에는 특성분노와 분노억제를 제외한 7가지 변인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의도קי인, 우울, 불안, 공격성 점수가 높았고 대조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자존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부민감성과 상관이 있는 특성분노와 분노억제 점수는 거부민감성의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Downey 등(1998)이 아동의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감성검사를 토대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우리나라 아동에 맞게 재구성한 아동용 거절민감성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5~6학년에게 거부민감성척도와 10가지 타당도 지표를 실시하여 심리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내적 합치도를 보면 거부불안은 .78~.89, 거부분노는 .71~.85, 거부우울은 .78~.92의 범위에 있었고, 전체 점수의 내적 합치도는 .85~.92이었다. 이는 Downey 등(1998)과 London 등(2007)의 연구에서 각각 보고된 거부불안의 내적 합

표 4. 거부민감성 정도에 관련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값

	거부민감성 총점		
	고	저	<i>t</i>
의도קי인	52.86 (8.75)	43.47 (8.84)	4.66***
자존감	12.35 (5.31)	19.45 (3.96)	-6.58***
자기유능감	91.00 (18.11)	110.45 (15.53)	-4.95***
사회적 지지	43.65 (57.05)	57.05 (8.02)	-5.21***
우울	15.25 (10.07)	7.61 (7.92)	2.89**
불안	12.50 (4.88)	6.04 (3.82)	5.06***
특성분노	7.13 (3.51)	5.22 (4.19)	1.68
분노억제	4.73 (2.96)	3.32 (3.06)	1.55
공격성	52.76 (11.33)	43.14 (11.49)	3.65***

주 1. () 안은 표준편차.

주 2. ** *p*<.01, *** *p*<.001

치도 .82, .76, 거부분노의 내적 합치도 .79, .69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75~.82의 범위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3주 간격으로 2번 실시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4주 간격으로 재실시한 Downey 등(1998)과 4개월 간격으로 재실시한 London 등(2007)의 연구에서 각각 보고된 거부불안의 재검사 신뢰도 .85, .60, 거부분노의 재검사 신뢰도 .69, .76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전체점수와 3가지 하위영역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하위영역 간에는 .88~.91, 전체점수와 3가지 하위영역 간에는 .96~.97로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3가지 하위영역 간에 상관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한 가지 하위영역 점수 만으로도 다른 두 가지 영역의 점수를 쉽게 예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가지 하위영역 간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이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한 하위영역의 점수를 통제 한 후에 부분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32~.57범위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 간의 상관이 매우 높으므로 관심 있는 하위 거부민감성 점수를 사용할 때 다른 하위영역의 민감성 점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민감성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Downey 등(1998)은 불안과 분노기대의 관계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를 두려워하는 불안기대는 내재화문제, 거부에 대해 분노를 경험하는 분노기대는 외재화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Downey et

al., 1998; London et al., 2007). 즉 불안기대는 대인관계상황에서 거부가 지각되면 사회적 불안, 위축, 우울과 같은 도망반응, 분노기대는 논쟁, 공격성과 같은 싸움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불안기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초기의 우울과 관련이 있고, 불안기대를 통제 한 후의 분노기대는 사회적 불안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London et al., 2007). 그리고 분노기대는 지각된 사회적 유능성 감소 및 공격성과 학교직원이나 또래들과의 갈등 증가와 관련이 있다(Downey et al., 1998). 이처럼 3가지 영역이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하위영역 간에 상관은 매우 높지만 구분하지 않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불안민감성을 다룬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거부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분노 기대와 거부불안민감성(거부예상 정도와 불안 기대를 곱한 값)과 거부분노 민감성(거부예상 정도와 분노 기대를 곱한 값)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 척도들 사용할 경우에도 하위영역 간에 상관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따라서 거부예상 정도를 곱하기 전의 값인 불안, 분노, 우울 거부정서와 거부민감성을 구분하거나 어느 한 두 가지 하위영역의 점수를 통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당도 지표 간의 상관을 보면 방임과 신체적 학대와는 구별되게 정서적 학대와 거부민감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학대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예컨대, 이경숙 등, 2000; 황은수, 성영혜, 2006; Chango et al., 2012)로 생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와 거부민감성의 상관패턴도 정서적 학대와외 상관패턴과 유사한 방향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관계상의 괴롭힘과 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선행변인이 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거부민감성 점수와 적대적, 의도적 귀인 점수간에는 .33~.48범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보다 적대적, 의도적 귀인을 하는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귀인편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은경, 2008; Downey & Feldman, 1998)와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거부민감성과 우울, 불안,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중재 또는 매개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진 자존감, 지각된 자기유능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보다 이 3가지 변인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은 자기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가치감,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나타내고(유고은, 방희정, 2011, Ayduk et al., 2000) 사회적 지지가 매개되었을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울점수가 낮아지고(Chango et al., 2012),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구미선, 2012)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우울, 불안, 특성분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중간 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긍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 척도가 거부관련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 우울, 특성분노와 같은 부정적 예기정서를 측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고 거부민감성이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예언하는 변인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노표현방식과 거부민감성의 상관을 구한 결과 분노억제는 거부민감성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거부민감성과 분노표출, 분노조절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분노검사의 특성분노, 공격성검사의 하위영역인 분노(표 3) 및 거부민감성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같이 고려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아동 학대나 또래의 무시 경험을 통해 분노를 발전시키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욕구를 쉽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예컨대, 김진선, 2009; Levy et al., 2002)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부에 민감한 아동들은 상당한 분노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거부를 피하고 수용이나 호감을 받기를 원해서 그러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거부민감성과 특성분노, 분노억제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만, 분노표출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더욱이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특성분노와 분노억제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간의 관계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연구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부민감성을 구성하는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의 상관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이 척도가 지니는 한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상호상관이 높아도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정서적 학대와 같은 변인이 거부불안, 거부분노 중에서도 거부분노 민감성 만을 예언하는 변인이고 특정 거부민감성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변인을 연구하거나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할 때 3가지 하위영역을 구분해서 연구하거나 어느 한 영역이나 다른 두 영역을 통제된 후에 어느 한 하위영역의 집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타당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학년,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 척도점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아동용 거부민감성질문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고 문항내용이 많아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면 학대나 따돌림 받아서 위축되고 그 결과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이 어려운 아동을 선별할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지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거부민감성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운석 (2010).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인식에 거절민감성이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미선 (2012).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선 (2009). 거절 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선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의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혜라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운,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

- 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유진 (2009). 아동우울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경, 민하영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17.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222.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기선 (2011).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양희 (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93-115.
- 전경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 (II). *재활심리연구*, 3, 53-59.
-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 33-50.
- 임지영 (1997).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희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1.
- 한태희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변인과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검증.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상황, 광경숙, 김미라 (2009). 아동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초등교육연구*, 19, 35-58.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3), 67-84.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775-782.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hel, W., Downey, G.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76-792
- Ayduk, O., Zayas, V., Downey, G., Cole, A. B., Shoda, Y., Mischel, W.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executive control: Joint predi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51-168.
- Bedell, P. (1997). *Resilient wome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lives of female offen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Vermont College of Norwich University.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e, D., & Ahluvalia, T.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7*(2), 169-190.
-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369-37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wney, G., & Ayduk, O. (2002). *Correl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ata, Columbia University.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61.
- Downey, G., Halim, J., & Bloger, N. (2003). *Rejection sensitivity and relationship break-up across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Talk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RCD), Tampa, FL.
- Downey, G., Lebold,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4-109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231-247.
- Harter, C.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3*, 87-97.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2).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 Interpersonal rejection* (pp.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481-506.
- Paprocki, C., Downey, G., Berenson, K., Bhushan, D., & El-Bassel, N. (2008). Rejection sensitivity, high-risk relationships, and women's health. In P. Noller (Chair), *Rejection sensitivity, interpersonal violence, and health*.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ationship Research, Providence, RI.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 338-349.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 271-280.
- Romero-Canyas, R., & Downey, G. (2008). Rejection sensitivity predicts overestimating the negative mood of others. Manuscript in preparation, Columbia University.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 119-1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f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30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8월 27일
 ◆ 계 재 승 인 일: 2012년 9월 06일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K-CRSQ)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K-CRSQ).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CRSQ,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6 elementary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 :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CRSQ were .83~.89, .72~.79, respectively. To test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participants were separated into two samples and administered the K-CRSQ and ten validity indices. The correlation of K-CRSQ and validity indices scores suggested that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re high. High rejection sensitivity group revealed high score on intentional attribu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contrast, low rejection sensitivity group revealed high score on self-esteem,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CRSQ children, reliability, validity